



식품업계
시가 신제품 개발
리뷰 분석까지
니



Life

호텔업계
이색 패키지로
편플레이션족 공략
L2



아동기부터 자립 후까지...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서울시, 2028년까지 1065억 투입 필요·육구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아동에 레슨비, 청년에 주거비 제공 긴급 위기상황엔 'SOS자금' 지원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 이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제공하고 SOS자금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1065억 8900만원을 들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5년에 불과한 '자립준비' 기간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천편일률적인 지원을 개인의 필요와 육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

꿈찾고키우기 내공 찾기 프로그램 운영 1:1 진로설계 컨설팅 맞춤형 학습지원	자립역량기르기 나만의 공간 조성 사회연계체험 프로그램 마음건강 돌봄
든든한 첫출발하기 맞춤 생활·경제 지원 확대 주거·의료 안전망 구축 취업지원 강화	지역사회 함께하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인별 맞춤형 자원연계 자립청년 자조모임 지원
추진 기반	전담솔루션팀 신설+온라인 통합 플랫폼 고도화 (자립지원 전담 기관 확대 운영)



우선 시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초3~중3)들이 꿈을 찾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흥미·적성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레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초·중학생들이 일상생활을 쉽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체험데이'를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보호아동들이 장을 봐서 요리

하거나 직업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우울증이 심해서 시설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서울아동 힐링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6개월간 전문·개별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시설로, 1기수당 30명씩 연 6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홀로서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민간 월세, 학교 등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월세·기숙사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발병 등에 따른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1인 7만원 상당)도 지원한다. 입·통원 의료비, 암치료비, 강력범죄 위로금을 포함해 총 16개 항목을 보장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의료비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다"며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보호 종료돼 나간 후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시설장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지원 근거가 없어 애매하다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지원 종료 이후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가정' SOS자금을 투

입해 자립청년을 돕기로 했다. 민간후원금 모집을 통해 2028년까지 2억원을 적립·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선순 실장은 "최대 지원 금액이나 수혜 대상은 좀 더 고민해 세부계획 수립시 참고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39세까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SOS자금으로 제공하면 큰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형 인턴십을 운영해 매년 88명이 구직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취업에 성공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새 출발 응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김 실장은 "청년 개인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많아지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도움받고 출발할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조희연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에 사죄"

(서울시교육감)

1980~90년대 피해자에 사과 뜻 전해 임용제외교원법 시행으로 구제 전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80~90년대 시국 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그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위로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국가 폭력으로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겪으신 선생님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조 교육감의 이날 게시글은 지난 10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

용제외교원법)'이 시행된 데 따른 행보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노동운동 관련 사건 및 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국가의 사과 및 실질적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불행 중 다행으로 2023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규명했다"라며 "진실화해위의 '시국사건 관

련 교원임용제외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지난날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음을 항상 생각하며, 이분들의 위훈을 자라나는 세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하겠다"라며 "국가 횡포로 인해 받았던 피해자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그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현진 기자 lhj@

내년 하반기, 수원발 KTX 개통 추진 속도

운행 횟수 늘고, 소요시간 단축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수원발 KTX 직결사업 시스템(전기·신호·통신) 사업의 입찰공고를 냈다. 8월 31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한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서정리역과 지제역을 연결하는 9.99km 길이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5년 하반기 개통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3499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부산행 KTX가 하루(평일) 4회 출발하지만,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운행 횟수가 12회로 늘어난다. 호남선(광주·목포행) KTX는 신설된다. 광주·목포행은 하루 6회 운행할 예정이다.

소요 시간은 단축된다.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현재 2시간 40분(KTX 기준)에서 2시간 16분으로 24분 줄어들고, 광주·목포는 2시간 가까이 운행 시간이 단축된다. / 수원(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내년부터 비거주건물 재생열 의무화

3만㎡ 이상 신축 건물에 의무기준 도입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건물은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에너지 설비를 마련하는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짓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해 지하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

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공사비와 공사 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열 히트 펌프 보급도 활성화한다.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25일 (木) 음력 : 6월 20일

수도권 날씨 26~3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25/31, 수원 26/34, 평택 25/34, 파주 25/32, 가평 24/33, 양평 25/33, 용인 26/34, 연천 25/33, 동두천 25/3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힐러리 클린턴 "뭇 깐 유리천장, 해리스가 깰 것" / 사진 뉴스시스
▲양대노총 위원장, 주요 20개국 노동조합 회의 참석

▲중상무부도 대기업계에 3중전회 결과 홍보... "개방 확대"
▲러시아 "한국의 모든 대러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것" 경고



▲'총선 참패' 英보수당, 당대표 선거 착수... 11월 2일 선출 / 사진 뉴스시스
▲중국 전문가, 해리스에 혹평...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아"

버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